리더에게 請하다

취임 2년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태고종 문화유산 인프라 확대…혁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2년을 맞았다. 태고종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사실상 반환점을 돈 상황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의 시간 동안 상진 스님은 종단 대외 신임도를 높이고 내부적으로 종단 운영 시스템 구축, 지방종무원과의 소통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상진 스님이 뿌린 씨앗들은 이제 싹을 틔워내는 중이다. 최근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는 종단으로 ‘태고종’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태고종도들이다. 실제 중앙종회가 나서서 4년 단임을 4년 1회 연임으로 전환하는 종헌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일 잘하는 총무원장’이 추진하는 종책의 연속·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이 같은 시류가 만들어진 데에는 상진 스님의 광폭 행보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 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만난 상진 스님은 취임 2주년의 소회로 ‘감사’를 꼽았다.

“무엇보다 종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 1년은 시간이 더디게 갔지만, 방향이 잡히자 순식간에 2년이 지나가더군요. 그 과정에서 협조와 격려, 비판과 불만이 함께 있었지만 그 모든 반응이 종단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은 ‘감사’입니다.”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해서는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 선양 사업을 통한 ‘태고종 뿌리 찾기’를 첫손에 꼽았다. 상진 스님은 취임 이후 중국불교계와 함께 절강성(浙江省) 호주(湖州)에서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했으며, 태고 보우 국사가 석옥 청공 선사에게 간화선법을 인가 받은 천호암에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법원루)’ 건립 불사를 추진 중이다.

“태고 보우 국사가 임제 선사의 19세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에게서 불조의 정법을 고려로 가져옴에 따라 한국의 선법(禪法)은 정통성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태고종은 한국불교의 뿌리가 태고 보우 국사에 있음을 학술·의식·문화로 입증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올해는 국회에서, 내년에는 중국불교협회와 협력해 베이징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태고 보우 선사 구도기를 바탕으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들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상진 스님은 각종 사회 이슈를 선점해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전개했으며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싱크탱크 조직을 구성했다. 이는 앞선 태고종 집행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행보였다. 종단 체제를 3원장에서 5원장으로 개편해 숨은 인재들이 총무원 주요 소임을 맡도록 한 것도 주요한 성과였다.

“태고종은 오랫동안 종단 안팎의 여러 이유로 대사회 포교가 미진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역할을 사회에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들이 선행돼야 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도 의사 파업 문제, 계엄 논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문제 등 공공선과 역사 인식에 관한 사안에는 분명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교계에서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선을 위한 ‘뚝심’ 있는 메시지와 ‘신념’에 기반한 대외 행보는 정계와의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종교지도자 오찬에서 조계종·천태종 총무원장과 함께 태고종 총무원장이 초청된 것은 태고종의 달라진 대외 위상을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특정 세력 편들기가 아니라, 한국불교와 태고종의 목소리를 제도권과 사회로 연결하려는 노력입니다. 과거에는 정계든 재계든 태고종을 잘 모르다 보니 대외 활동이 제약됐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종단 부장단과 실무자들에게 정계·지자체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배우도록 권합니다. 서열, 관례에 갇히지 않고 당당하게 노력해서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도와 인연들에 감사
협조와 비판 모두 종단 운영의 동력”
태고 보우 국사 선양사업 등 성과
종단 대외 인지·신뢰도 확대 ‘자부’

11월 8일 광화문광장서 대형 법석
영산재·국제수계법회 봉행 예정
“계를 수지하는 것은 참회하는 것
참회하고 보살이 되자는 취지”

영산재보존센터, 선암사 수장고 등
무형유산 보존 전승 인프라 구축
염불명상 등 포교 방안도 계획



상진 스님은…1991년 4월 철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2011년 11월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했고, 2022년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양주 정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정련사 안정불교대학 강주, 양주불교사암연합회 명예회장, 고려대 불자교육회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다. 사진=정현선 작가

종단 내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는 ‘하심(下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소통의 기본은 하심입니다. 권위와 아상을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 듣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또 지방자치제에 준하는 ‘자율 운영’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사찰과 교구의 고유 재산과 일상 행정은 현장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고, 총무원은 지원·연결·조정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총무원장이 대중과 다를 바 없다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시간을 나누는 것이 화합의 시작입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이제는 거두는 때”라고 밝힌 상진 스님은 임기 후반부에는 태고종의 강점인 전통문화·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전승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은 의식·범패·작법 등 불교무형문화의 보고입니다. 태고종이 보유한 영산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넘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지 15년이 지났죠. 또한 태고종 선암사에도 정말 많은 불교 유형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산재 전승센터·공연장과 유형유산들을 보존할 수장고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최근 협의를 진행했고, 긍정적 답변을 얻었습니다. 영산재 보존센터 건립을 통해 상설 시연 및 보존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선암사 성보박물관 설립으로는 유물·자료의 수장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태고종만의 독보적인 콘텐츠 발굴·개발에도 노력하려 합니다.”

이 같은 종책 사업을 위해 상진 스님은 문화유산 관련 국가 예산 도입과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국가 예산 도입은 지난 대선 당시 태고종이 발표한 ‘2025 국민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 담긴 사안과 궤를 같이한다. 태고종은 자료집을 통해 “‘국가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 국가유산 유형별 비율과 특성을 반영해 인사와 예산, 조직을 배분하는 ‘비례성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단순하게 태고종에 문화유산 관련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통사찰과 유·무형유산들을 태고종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그간 관행적으로 특정 종단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예산 배정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 달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모든 과정에서 부장단과 실무자들이 직접 뛰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종단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변화된 종단 위상을 보여 주는 대형 법석을 계획 중이다. 태고종 총무원과 영산재보존회는 11월 8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 시연과 세계 7개국 고승 초청 국제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도와 국내외 불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며,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불교문화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이다.

“국제수계법회는 국내외 선지식과 태고종도, 국내외 불자, 시민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적 법회입니다. 해동율맥 수진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국내외 선지식들이 7증사로 참여하며 종정 예하와 제가 증명으로 참여합니다. 현장 접수 데스크를 설치해 지나가던 시민도 그날 보살계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스님에게 ‘왜 보살계를 수지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참회하는 삶을 살아 보살이 되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계를 받는 것은 ‘참회(懺悔)’하는 행위입니다. 참회는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1년 동안 지은 업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단단히 참회하고, 하루만이라도 보살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면 됩니다. 하루라도 보살이 되어 보세요.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모두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까지 상진 스님은 계획 중인 여러 종무행정·문화유산·청년포교 아이템들을 쏟아냈다.

“청소년 명상프로그램을 구상 중인데, 염불과 소리·공양 명상 등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명상임을 알리는 수행법입니다. 청소년·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민관협력 페스티벌과 불교 성지 순례 프로그램, 태고 보우 국사 음악축제 등도 추진해 보려 합니다. 이제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태고종은 문화와 포교가 강점인 만큼 이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태고종이 우뚝 서는 것, 그 성취를 위해 남은 시간도 전력으로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도와 불자들에 대한 당부를 물었다. 이에 스님은 종도에겐 ‘애종심’을, 불자들에게는 ‘참회’를 요청했다.

“태고종도라면 무엇보다 애종심이 중요합니다. 종단이 먼저 무엇을 해주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자라면 매일 저녁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하길 바랍니다. 저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망은 모래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성냄과 허물을 내려놓는 연습이 다음날의 미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태고종은 한국불교의 뿌리로서, 전통과 현재, 의식과 문화, 수행과 공공선을 연결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2월 24일 태고종을 방문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상진 스님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중국 호주 천호암에서 진행된 법원루 기공식에서 상진 스님 등이 시삽하고 있다.